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알파벳 급등,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 확대 등으로 상승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4일(월) 미 증시는 제미니 3.0 호평 속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알파벳(+6.3%)이 AI 버블론을 완화시킨 가운데 월러 연준 이사의 12월 금리 인하 지지 발언 등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 재확대 등에 힘입어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한 결과 3대 지수는 상승 마감(다우 +0.44%, S&P500 +1.55%, 나스닥 +2.69%)

이 날 미 증시는 최근 시장을 짓눌렀던 AI 버블론과 금리 인하 불확실성 이슈가 동시에 완화되며 반등에 성공. 특히, 제미니 3.0 킬러앱 호평 속 AI 수익화 논란을 완화시킨 알파벳(+6.3%)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구글 TPU 설계 및 제조의 핵심 협력 업체인 브로드컴(+11.1%)도 급등세 연출. 또한, 전일 엔비디아(+2.1%)는 최근 제기되는 AI 버블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재고 증가는 블랙웰 출시를 앞두고 제품 비축한 것', '매출 채권 증가 관련 수급에 전혀 문제없다', '순환 금융은 매출의 극히 일부인 3~7%만 스타트업에서 나온다')를 글로벌 투자자에게 발송한 점도 AI 버블론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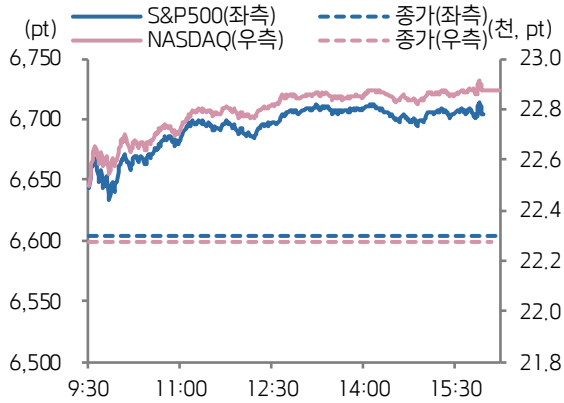
한편, 지난주 금요일 금리 인하 지지 의견을 표명했던 뉴욕 연은 총재('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은 적는데 반해, 고용시장은 냉각 조짐') 발언에 이어 월러 연준 이사 또한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보다는 고용 시장 둔화에 초점을 맞춰 다가오는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언급. 연이은 연준 인사들의 비둘기파적 발언 속 Fed Watch 기준,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1주 전 42.4% → 현재 82.9%까지 상승한 상태.

불확실성 요인이 완화되며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개선되었지만, 연준 내 금리 동결과 인하 간 이견이 극도로 엇갈리는 만큼 금주 발표될 경기, 물가 지표에 따라 시장은 재차 변동성 확대에 노출될 수 있음. 다만, 11월 이후 시장은 금리 인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이에 따라, 9월 PPI, 소매판매(25일), 내구재 주문, 주간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26일) 등의 주요 지표가 연준 금리 인하 방향성에 우호적으로 발표될 경우 호재 민감도 높아짐에 따라 시장은 예상보다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구간.

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연은 총재의 비둘기파적 발언 속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장 초반 상승 출발하였으나,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 부담 등으로 외국인 수급 방향성이 순매도로 전환되며 낙폭 확대된 결과 양 지수는 하락 마감(코스피 -0.19%, 코스닥 -0.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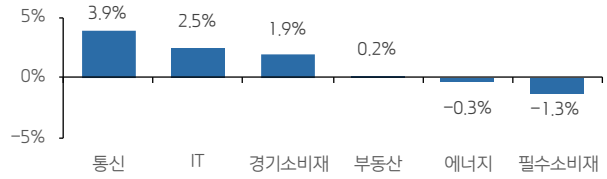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는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 강화, 알파벳을 필두로 한 AI 산업 모멘텀 재확인 등에 힘입어 반도체, AI 인프라 관련주를 중심으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 또한,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5원대 레벨로 급등하며 원화 약세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 외국인의 국내 증시 자금 유입을 일정 부분 가로막고 있던 상황. 이러한 가운데 전일 기재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 4자 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투자 과정에서 외환시장 수급에 미치는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지난 11월 이후 코스피 기준 외국인 순매도 금액은 약 12조 원으로 외국인 수급은 과매도 영역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미 증시 호재와 더불어 원달러 환율 또한 당국 개입으로 안정화될 경우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외국인 수급이 재차 매수세로 전환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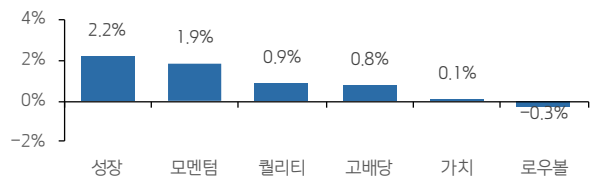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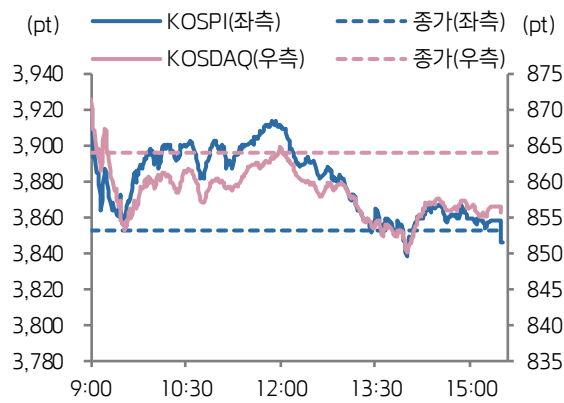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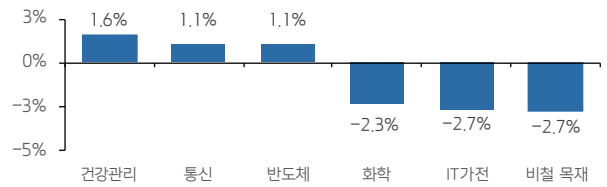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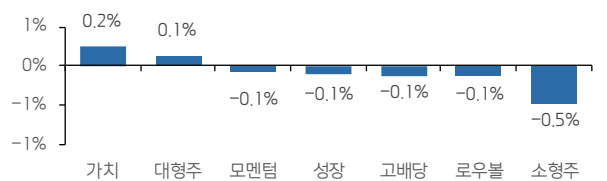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76.00	+1.66%	+10.71%	GM	71.00	+0.95%	+34.4%
마이크로소프트	474.00	+0.4%	+13.28%	일라이릴리	1,070.16	+0.99%	+39.66%
알파벳	318.58	+6.31%	+68.84%	월마트	104.06	-1.2%	+16.04%
메타	613.05	+3.16%	+4.95%	JP모건	298.00	-0.01%	+26.95%
아마존	226.28	+2.53%	+3.14%	엑손모빌	115.97	-0.95%	+11.77%
테슬라	417.78	+6.82%	+3.45%	세브론	149.75	-0.15%	+8.18%
엔비디아	182.55	+2.05%	+35.97%	제너럴일렉트릭	104.06	-1.2%	+16%
브로드컴	377.96	+11.1%	+64.19%	캐터필러	559.60	+1.67%	+56.59%
AMD	215.05	+5.53%	+78.04%	보잉	179.12	-0.32%	+1.2%
마이크론	223.93	+7.99%	+166.84%	넥스트에라	84.23	+0.9%	+21.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3,846.06	-0.19%	+60.29%	USD/KRW	1,476.50	+0.34%	+0.29%
코스피200	540.81	+0.08%	+70.16%	달러 지수	100.19	+0%	-7.65%
코스닥	856.44	-0.87%	+26.28%	EUR/USD	1.15	+0.07%	+11.27%
코스닥150	1,489.11	-1.9%	+31.8%	USD/CNH	7.10	+0%	-3.18%
S&P500	6,705.12	+1.55%	+14%	USD/JPY	156.86	+0.29%	-0.22%
NASDAQ	22,872.01	+2.69%	+18.44%	채권시장			
다우	46,448.27	+0.44%	+9.18%	가격	DTD(bp)	YTD(bp)	
VIX	20.50	-12.51%	+18.16%	국고채 3년	2.905	+3.2bp	+31bp
러셀2000	2,414.28	+1.89%	+8.26%	국고채 10년	3.290	+1.5bp	+41.9bp
필라. 반도체	6,703.20	+4.63%	+34.6%	미국 국채 2년	3.499	-0.8bp	-74.3bp
다우 운송	16,037.25	+0.15%	+0.89%	미국 국채 10년	4.031	-3.3bp	-53.8bp
상해종합	3,836.77	+0.05%	+14.47%	미국 국채 30년	4.674	-3.8bp	-10.8bp
항생 H	9,079.42	+1.79%	+24.55%	독일 국채 10년	2.692	-1.1bp	+32.5bp
인도 SENSEX	84,900.71	-0.39%	+8.65%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가격	DTD(%)	YTD(%)	
Eurostoxx50	5,528.67	+0.25%	+12.92%	WTI	58.84	+1.34%	-13.32%
MSCI 전세계 지수	970.76	+0.23%	+15.38%	브렌트유	63.37	+1.29%	-15.1%
MSCI DM 지수	4,242.67	+0.6%	+14.42%	금	4,130.80	+0.36%	+48%
MSCI EM 지수	1,333.96	-2.74%	+24.03%	은	50.33	+0.83%	+72.1%
MSCI 한국 ETF	90.30	+1.21%	+77.44%	구리	496.75	-0.95%	+23.37%
디지털화폐				BDI	2,275.00	+0.22%	+128.18%
비트코인	88,940.54	+1.11%	-5.09%	옥수수	437.25	-0.06%	-3.95%
이더리움	2,967.49	+4.44%	-11.33%	밀	535.00	-0.88%	-12.83%
				대두	1,121.25	-0.33%	+8.46%
				커피	376.55	+1.92%	+34.8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1월 24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